사순 제 5 주일 2014 년 4 월 6 일 (가해)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1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한국어 성체조배: 매월 둘째 수요일 한국어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에제 37,12 ㄹ-14

화답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 2 독서 로마 8,8-11

복음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복음 요한 11,1-45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 월 6 일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4 월 13 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4 월 20 일	전 니콜	이 요한	성인복사
4 월 27 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3 월 30 일	$ 335.00	_	$450.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부활 꽃 봉헌

부활절 제대를 장식할 꽃 또는 구입비용(현금)을 봉헌하실 분은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 또는 성당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체조배: 매월 둘째 수요일 저녁미사 후

매월 둘째 수요일,'7 시 30 분 저녁미사 '후에 한국어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성주간 미사 및 전례 일정

성 목요일 (4/17)*: 오후 7 시 미사 및 성체조배.
성 금요일 (4/18): 오후 3 시 'Passion of the Lord'.
오후 7 시 '십자가의 길' (세 공동체가 같이).
성 토요일 (4/19): 오후 8 시 부활성야 미사
부활대축일(4/20): 오전 8 시 한국어 미사.

사순절 '십자가의 길' 일정

사순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8 시 ('7 시 30 분 한국어 저녁미사' 후) 에 '십자가의 길' 전례가 있습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는 주임 신부님께서 직접 함께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총속에서 사순시기를 보내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공 동 체 소 식

영성영화감상: 4/13 (오늘) 주일미사 후 10:00-12:00

벤허 (1959 년 제작, MGM. 감독: 윌리엄 와일러) 속편 감상.
*지난 주(3/30) 상영한 벤허가 상영시간이 긴 관계로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2 부 (상영시간: 1 시간)를 오는 4 월 13 일 주일미사후 상영할 예정입니다.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8 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기도회 단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평협 임원회의: 4/8 (화) 저녁 8 시

오는 4 월 평신도 협의회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4 월 8 일 화요일 저녁 8 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소공동체 구역모임: 4/20 (주일) 아침 8 시 미사후

4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셋째 주일인 4 월 20 일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한인 공동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매주일 있습니다..
기간: 2014 년도 1 월 첫째주일 부터 4 월 부활절까지
주제: 가톨릭 교회의 핵심교리. 교제: '하느님을 향하여' (지은이: 최기산)
내용: 매 주일미사후 친교실에서 15 분가량 교재를 구역별로 모여서 읽음.
***부활절 퀴즈대회: 4 월 20 일 (주일) 오후 5 시 예정**.

하마이카 봄 축제: 4/27 (주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라플티켓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티켓은 개당 2 불입니다.

영어 독서 전례 봉사자 모집

주일 한국어 미사의 제 2 독서는 영어로 봉독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신자분들 중 영어독서 전례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정 안드레아 전례부장님께 문의 해 주십시오.
*주일미사 15 분 전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인공동체 장학금 신청

한인공동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상: 한인공동체 대학 재학생 또는 대학 진학예정자.
장학금: 1 인당 $500 까지.
선정기준: 신앙생활 (주일미사 참례 등) 및 본당활동, 성적 (GPA 3.5 이상), 가정형편 등.
*신청서 배부는 김헬레나 총구역장님께 문의.

축하드립니다.

지난 3/23(주일) 성경공부 중간평가 퀴즈에서 이 클라라, 허 율리아나 자매님 두분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이리 나와라

황영애 에스텔 | 상명대 명예교수

때로는 세상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홀로 내팽개쳐진 것 같은 쓸쓸함 때문에 우울해져서 한없이 움츠러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이리 나와라"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숨어서 밖에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저를 향해 어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생각해보면 그 쓸쓸함의 원인은 그냥 던진 한 두 마디 비난의 말이었을 뿐이었는데, 큰 수치심을 느껴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얼마나 이율배반인지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반백 년을 화학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 은 물론이고 전공하는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화학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고 고심하던 중, 화학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화학을 인생에 비유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화학 반응과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가 해내기 힘든 덕목을 실천하게도 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계기로 화학과 영성에 관한 책을 내게 되었고, 오늘도 묵상하는 중에 '균일촉매' 라는 물질이 떠오릅니다. 이 촉매는 두 물질 사이에 결합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중매쟁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중매역할은 촉매가 자신이 가져야 할 전자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빈자리를 가진 물질이기에 가능합니다.

이 빈자리는 결합하려는 물질들에게 만나는 장소가 되는 한편, 두 물질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만남의 결실을 만들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물질들이 들어와 생성물 만들기를 반복합니다. 촉매의 부족함이야말로 다른 물질들을 끊임없이 불러오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촉매는 제게, 물질이라는 친구들은 자신이 부족했기에 다가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채워진 완벽한 친구에게는 해줄 일이 없지만, 오히려 부족한 친구에게는 채워줄 부분이 있어서 다가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저의 부족함을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무서워 숨어버린 것은 결국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 또한 그로 인한 아픔도 품어줄 수 있기에 그들이 제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움츠리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할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울주보에서-